

고려시대 자은사 절터 흔적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인천-4-9-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인천
수령 1,0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8,4m



인천 강화군 불은면
불운남로442번길 89-22
37° 40' 59.46" N
126° 30' 02.64" E



강화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고 있는 보호수(인천-4-9-3) 은행나무는 들판과 밭 사이의 비탈면에 우두커니 서 있다. 가지의 풍성함은 예전 같지 않으나 아직도 열매를 맺고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84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부터 크고 작은 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퍼져 있다. 줄기 몸통의 굴곡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사찰 및 신목과 관련이 있다. 마을 주민들과 일부 지식층의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고려시대에 있었던 자은사(慈恩寺) 절에 심었던 나무라고 말하고 있다.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자은사터 마당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어느 일본인이 이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이 되자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은행나무를 베던 일본인은 결국 벼락에 맞아 죽었다. 이와 다른 이야기로서 마을 사람들은 고능리라는 명칭에서 예상되듯이 이 마을은 태조 왕건과 그의 아버지 능이 있었던 자리라고 믿고 있다. 강화사에 의하면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태조 왕건과 그의 아버지 능을 강화로 이장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장지는 선원면 일원이지만 첫 번째 장소는 정확하지가 않다. 고능리는 홍살문이 있었던 '대문재'와 왕실 원찰로 추정되는 '자은사터' 등 왕릉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다.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은행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올렸는데, 지금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도 특별하게 제사를 올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은행나무 앞에 터줏가리를 모셔 놓고 신목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터줏가리는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의 신체이며, 매년 음력 시월 가을걷이가 끝나면 향아리 속에 쌀이나 벼, 콩이나 수수 등 곡식을 넣어 집가리를 씌운 후 뒤뜰 또는 장독대 근처에 모신다.